

## [후기] 우리는 왜 미끄러지는 걸까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과정 곱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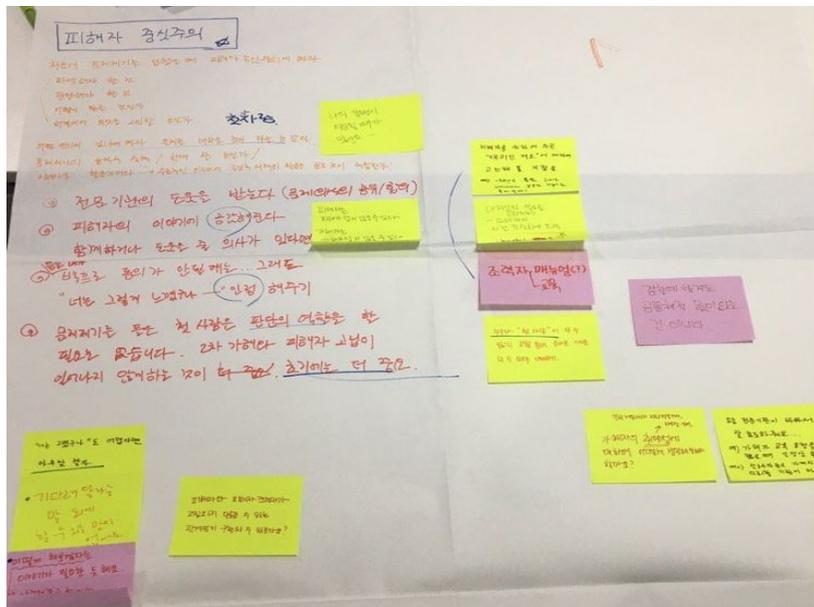
20191122



지난해 8월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 내 해결’이라는 주제를 놓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간담회를 연데 이어 올해 11월에는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과정 곱씹기”라는 주제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성폭력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비해 공동체에 쌓이는 문제해결 역량은 참 더디게 쌓이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경험한다는 점, 사건이 어렵사리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회복은 요원하고 다시 조직은 아무일 없다는 듯, ‘쉬쉬’하며 굴러갑니다. 판에 박힌 듯 같은 일이 무수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반복이 일종의 ‘실패’로 해석된다면 왜 매번 우리는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지, 조직이 가진 수많은 문제 중 왜 유독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일을 ‘더’ 힘들어하는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앞에 눈을 질끈 감기보다 더 많은 말을 ‘이어’가보자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실패’라는 말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공동체 내 다양한 시도들과 노력들을 떠올리며 워크숍의 제목은 ‘우리는 왜 미끄러지는 걸까’로 정했습니다.

토론을 이끌 몇 가지 열쇳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와 같은 모두가 익숙하지만 잘못 사용하기 쉬운 개념어들로, 워크숍에 모인 참가자들의 ‘미끄러진 경험’ 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워크숍은 세 개의 모듬을 1) 문제제기 상황 2) 문제해결과정 3) 문제해결 이후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 문제제기과정 모듬 토론 진행자가 들려주는 후기입니다.



“작년에 많은 활동가들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길 주저하고, 2차 가해자로 몰릴까봐 두려워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이번 워크샵도 많은 활동가들이 그 때의 위축된 마음으로 임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전혀 달랐다. 다들 피해자와 어떻게 잘 소통할 것인가, 어떤 조력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셨다. 뭔가 기존의 고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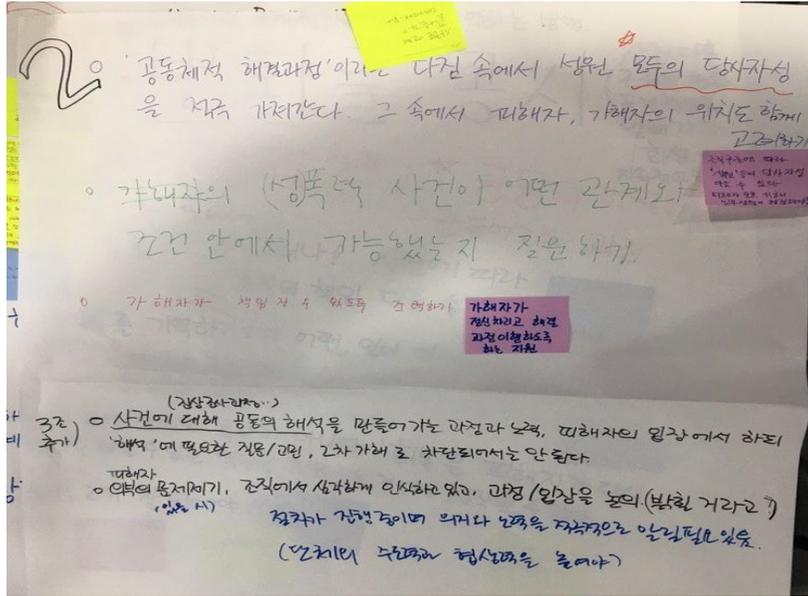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에서 문제를 공론화한 피해자-활동가는 가해자만이 아니라 동료 활동가들과도 신뢰 관계의 훼손을 경험한다. 그건 조력자들도, 다른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다. 공론화 이후 과정이 필연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정이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 첫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처음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 특히 조력자의 역할을 고민했다. 피해자-활동가의 문제제기를 처음 듣게 되는 첫사람의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직적 차원에서 각자가 조력자가 될 수 있게 매뉴얼과 트레이닝을 지원하고, 사건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와 조력자가 고립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계망을 구축하는 등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를 맡은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의 나영은 첫사람이나 대리인과 달리 조직에서 사건 조사하는 사람일 때는 피해자의 말을 정확히 듣는 것을 너머 사건의 주변의 맥락에 대해 적절하게 질문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문제의식을 꼬집어 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요구의 수용/불수용 문제라기 보다 피해자를 문제해결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관계 맺을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이 짚어졌습니다. 공동체는 피해자가 과도하게 자기 요구만 하는 문제적 인물 혹은 폭력앞에 무기력한 사람이 아닌 문제 해결과정의 협상 주체이자 변화하는 주체라는 점, 그러하기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조직이 다 들어주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피해자의 말에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고 사건의 결정을 맡겨 사건해결의 최종적인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공동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견지하고 피해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해석해나갈 때 '사건에 대해 말하기'는 2차가해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찰자나 판관자의 자리에서 폭력적인 말하기가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더 많은 말하기'는 피해자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2) 문제해결과정 모둠 토론 진행자가 들려주는 후기입니다.



“문제해결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는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원칙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피해자 곁에 설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다양한 대답을 가지지 못 했다. 문제해결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패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그 빈칸을 채워가는 과정의 시작인 것 같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천할 때,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가장 정의로운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단어는 가해자의 말 보다 피해자의 말을 비중 있게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피해자가 항상 옳다는 말이 아니다. 피해자의 요구사항에만 집중하다보면 오히려 사건해결의 책임이 피해자에게만 떠넘겨짐으로서 나머지 구성원들의 책임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해자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중요한 주체이지만, 공동체 내 성폭력의 원인이 조직문화라고 한다면,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은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지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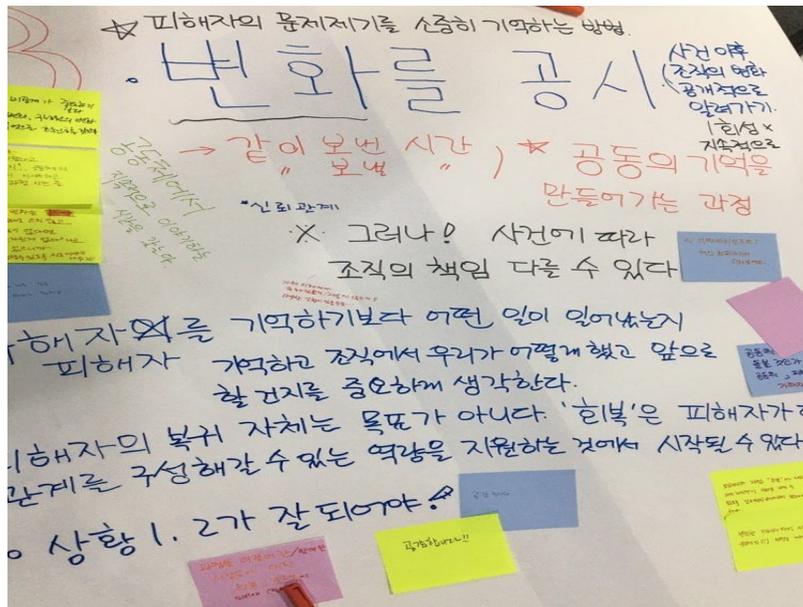
우리가 만나는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해자답지 않고, 가해자는 가해자답지 않기도 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에 따라 가해자가 불리할 수도, 피해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 무엇이 권력으로 작동하는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조력인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권력관계를 성찰할 수 있을 때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이 공동체 구성원의 이슈가 될 수 있다.”

워크숍은 사건 해결 과정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공동체가 가해자로 하여금 사건해결 절차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만드는 것 역시 사건이 ‘해결’의 참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요건이라는 공동의 이해가 만들어졌습니다. 사건의 절차 앞에 ‘도망가는’ 가해자가 너무 많은 탓이지요.

한편 절차를 잘 따른다는 것이 가해자의 변화나 성찰을 담보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경험적 사실도 토론을 뜨겁게 했습니다. 징계절차가 형식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절차가 형식화되는 경우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자기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기보다는 그저 '해 내야 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해결 이후 공동체에 남겨진 숙제는 조직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는 것, 이를 위해 단순히 피/가해자만의 사건이 아닌 우리와 연결된 누군가에게 생긴 일에 대한 공동의 기억을 만드는 과정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3) 문제해결 이후 모둠토론 진행자가 들려주는 후기입니다.



“문제해결과정 이후를 이야기할 때 체크해야 할 지점들이 있었다. 문제해결의 종료는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더불어 종료를 했다고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그러하다.

사건 당사자들은 사건이 종결되고 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징계절차를 끝냈다고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의 징계절차는 그의 성찰과 반성, 변화의 노력을 확인하는 과정뿐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피해자 개인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그의 복귀를 위해 일일이 챙겨야 한다는 것이기 보다, 그가 다시 관계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하고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가깝다. 말하자면 공동체의 노력은 개별 사건을 거듭 복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제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를 공론화한 피해자의 노력을 소중히 기억하고, 그로부터 공동체가 변화를 위해 노력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 내 사건을 해결하고 이후의 노력을 모색하는 시도들이 단지 성평등으로만 국한되기보다 전반적인 조직문화를 돌아보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사건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조력자의 회복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또한 공동체의 노력이라는 지점에서 연결선상에 있다. 한편으로는 사건 해결 이후 단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해 수시로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단체의 노력을 외부에 인지하는 효과 너머 공동체 바깥에도 공동체적 해결의 과정과 의미를 전달하고 공론장에 나누는 것이기도 하다.”

-----  
워크숍의 꼬트머리에서 사회자는 운동사회 구성원들의 고민들이 해를 거듭할 수록 구체화 되고 변화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작년 간담회에 참가했던 한 참가자는 조직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안전하게 말하는 자리’가 필요했다는 웬지 모르게 몽글한 소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더 많은 말하기가 가능하려면 수신자와 발신자 모두가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그동안 너무 쉽게 어그러져온 명제가 다시금 떠오르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워크숍의 제목이 “우리는 왜 미끄러지는 걸까?” 였지만 더 잘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미끄러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고민이 고민으로 남지 않기 위한 ‘미끄러졌던’ 경험들을 잘 정리해 데이터를 쌓아가자는 다짐과 문제를 감추기 보다는 멈추지 말고 이야기 하자는 약속이 남은 워크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작성| 준비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넷,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우린 왜 미끄러지는 걸까”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과정 곱씹기

- ◎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 3시-6시
- ◎ 장소 : 인권중심 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
- ◎ 소개 : 작년 8월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 내 해결’을 둘러싼 고민과 질문을 나누는 워크숍 이후 후속논의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의 평가 설문을 토대로 다시 자리를 열고자 했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11월 22일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과정에 대해 곱씹어보는 워크숍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워크숍 제목은 “우린 왜 미끄러지는 걸까”입니다. 왜 미끄러지게 되는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이후 다시 미끄러져도 ‘잘’ 미끄러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동체 안에서 △문제제기가 있고, △해결절차를 밟아가고, △절차를 종료한 이후-라는 상황별로 공동체에는 어떤 고민과 과제가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모둠별 워크숍 방식으로 함께 하는 시간 안전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프로그램 진행 (안)
  - 6명씩 3개 모둠 구성
  - 각 모둠은 1) 문제제기 2) 문제해결과정 3) 문제해결 후 상황 중 지정된 한 가지 상황에 집중하여 토론한다(40분)
  - 각 모둠에 준비팀 1-2인이 배치되어 토론을 이끈다. 진행자는 모둠토론의 구성원의 발언권이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토론 시작 전 모든 구성원에게 이를 당부한다. 시작 전 발표자와 서기를 정해두는 것도 좋다.
  - 진행자는 제시된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문제해결에서 고려해야 할 점 내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지점들을 도출한다.
  - 집중 토론 후, 결과를 나누어준 전지에 정리하고, 이를 나머지 두 모둠에 순차적으로 공유한다. 이를 공유 받은 다른 모둠은 질문 혹은 의견을 추가한다. (위키백과 작업처럼) (20씩), 이후 전지를 돌려받아 다른 조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검토한다. (10분씩)
  - 모둠별 발표: 각 조에서 집중 토론한 내용과 다른 조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전체 참가자들과 나눈다. (10~15분씩)
- ◎ 시간배분(안)
  - 15:00-15:20 여는 시간 – 워크숍 소개
  - 15:20-16:00 모둠 집중 토의(40분)
  - 16:00-16:50 다른 모둠 토의 결과에 의견 달기(40분-20분씩 2회)+피드백 확인하기(10분)
  - 16:50-17:00 쉬는시간(10분)
  - 17:00-17:45 발표 및 종합토론(45분)
  - 17:45-18:00 참여자 소감 나눔(15분)

<sup>1</sup> 이 문서는 워크숍 당일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문서입니다. 조직내 성폭력 문제해결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널리 공유하고자 배포하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상황1]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접하고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조직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가 공동의 문제는 아님. 예컨대 두 사람은 이전부터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연장선상의 일 같기도 하다.’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백프로 동의가 안 되는데, 내가 젠더감수성이 부족해서일까.’  
‘내가 가해지목인이라면 더 친해서 상황을 객관화하지 못하는걸까.’  
‘피해자의 문제제기에는 동의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나은 것 같다.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것 같다.’

### [토론 키워드]

- 피해자중심주의
- 조력자의 역할
- 공동체적 해결

### => 이 상황에 공동체(구성원)가 고려해야 할 점들 정리해보기

예시)

-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본다.
-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말을 경청한다.
- 조직은 피해자를 조력하는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상황2]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인 건 알겠는데, 피해자의 요구가 과하게 느껴진다. 가해자에게든 조직에게든 이런 요구는 너무 한 것 아닌가.’  
‘피해자는 징계의 가장 높은 단계인 제명을 요구하는데, 징계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을 때 원망을 듣게 될까봐 두렵다.’  
‘행여 대책위도 2차 가해를 한다는 원성을 들을까봐 두렵다.’  
‘해결과정에서 어느 순간 원 사건 가해자는 사라지고, 2차 가해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SNS를 보는 게 무섭다.’  
‘자신 잘못된 거 없다며 날뛰는 가해자, 대충 사과하고 끝내려는 가해자. 해결과정에 책임있게 가해자를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직의 구성원도 사건에 대해 적절하게 개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건과 관련해 어떤 말도 꺼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

### [토론 키워드]

- 2차가해와 피해자보호 (비밀주의 원칙 등)
- 피해자와의 소통, 협상
- 가해자의 책임
- 조직 내 구성원 간 문제의식의 공유, 소통

**=> 이 상황에 공동체(구성원)가 고려해야 할 점들 정리해보기**

예시)

-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의 잘못은 물론 가해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조직 문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건해결과정에 임한다.
- 사건이 가십화되어 피해자가 일방적인 비난에 노출되는 등의 결과로 피해자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상황3] 절차가 종료되고 그 이후에**

‘사건 해결 과정에서 보인 태도 때문에 이제 조직의 다른 구성원이 꼴도 보기 싫다. 이전처럼 신뢰할 수가 없다. 말로는 지지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회피하고 특히 특정(주로 여성) 활동가들에게 문제해결을 외주하는 방식이었지 않은가?’  
‘가해자는 징계 결정에 충실히 따르 후 복귀했지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난감하다.’  
‘결국 조직을 떠날 거였다면 피해자는 왜 문제제기를 했을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다.’  
‘피해자가 조직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 한 마디하기가 조심스럽다.’

**[토론 키워드]**

- 신뢰 구축 (다시 관계 맺기)
- 가해자의 성찰 (가능한가)
- 피해자의 회복
- 절차의 종료가 곧 문제의 해소인가?

**=> 이 상황에 공동체(구성원)가 고려해야 할 점들 정리해보기**

예시)

- 무너진 공동체 구성원간 신뢰를 재구축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 구체적인 조직 맞춤형 프로그램을 고민해본다.
- 피해자가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 가해자의 성찰과 변화와 함께 조직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